

## 간세포암의 횡격막 전이에 의해 발생한 복막투석액의 흉강누출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안용성 · 박기태 · 김정희 · 송상헌 · 이동원 · 이수봉 · 곽임수

**서론** : 투석액의 흉강누출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발생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림프액 배액의 이상, 복막과 흉막의 압력차, 횡격막의 선천성 결손 등이 가능한 원인이다. 침윤성 질환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의 횡격막 침범에 의한 투석액의 흉강누출이 2예 보고된 적이 있으나 간세포암의 횡격막 전이에 의해 발생한 증례는 국내외에 보고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치료적 비디오 흉강경 시도 때 우연히 발견된 횡격막 전이된 간세포암에 의하여 발생한 투석액의 흉막누출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7세 남자 환자가 구토,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당뇨, 고혈압, 만성 B형간염과 만성신부전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알파황토탄백 4.84 IU/mL, 복부초음파에서 간경변, 복수이의 특별한 이상 없었다. 응급혈액투석 시행 수일 후 복막투석도관을 삽입하고 복막투석을 시작하였다. 복막투석시작 14일째 투석액의 배액량이 감소하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단순 흉부방사선검사서 우흉부에 광범위한 흉막삼출이 있었다. 복막투석을 일시중지하고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으나 복막투석 중지 3주일 후 흉수가 지속되어 투석액 흉강 누출의 치료 위해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비디오 흉강경으로 흉강에 진입시 횡격막에 돌출되어 있는 종괴가 발견되어 절제하고 봉합 후 복막투석 도관으로 메틸렌 블루로 염색된 투석액을 관류하여 관찰하였다. 횡격막을 통하여 스며 나오는 투석액은 관찰할 수 없었고 종괴 제거 부위로 투석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g의 활석을 집적하고 흉관삽입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제거된 종괴는 조직검사서 간세포암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간 양엽에 초기동맥기에서 조영증강이 되고 지연영상에서 세척이 되는 미만성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간 낮인대를 침범하고 있었다. 환자의 여명을 고려하여 혈액투석하며 대증치료 중 간세포암 괴사로 사망하였다.

**결론** : 드물지만 악성종양이나 침윤성 질환에 의하여 2차적으로 복강-흉강교통이 발생할 수 있고 비디오 흉강경은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복막투석전 필요시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복부종괴유무 판정이 필요하며 흉강 누출의 원인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